

## [논평]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북핵 문제와 관련한 분명하고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은 지난 1,2차 정상회담과 북미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합의를 거두는 성과를 올리게 되기를 바란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아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나 북·미 협상을 촉진해 나간다는 식의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다른 교류 협력의 밑그림을 그린다 해도 국민적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함께 방북하는 여, 야 대표, 기업인, 종교 문화계 인사들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에서 핵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라며, 각자 제목소리를 내는 식의 엇박자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이번 방북단에 기독교에서 KNCC 총무 혼자 선정된 것에 대해 기독교에 대한 정부의 편향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며 깊은 우려와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돕기에 앞장서오며,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실질적인 남북 교류의 힘을 보탠 것이 진정 누구인지 정부 당국자는 똑똑히 파악하기 바란다. 이런 식의 한국교회 편 가르기는 향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전쟁이 사라지고 장차 남북 평화 통일의 디딤돌이 놓아지기를 1천만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희망의 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